

완결성 교체현상과 사건구조

김 경 학
(수원대학교)

Kim, Kyoung-Hark. 2002. Telicity Variability and the Event Structure. *Korean Journal of English Language and Linguistics* 2-2, 161-183. This paper deals with the telicity variability on the point of Pustejovsky's (2000) event structures. Accomplishments and achievements have been known to show the telicity. According to Hay, Kennedy, and Levin (1999), however, open-range predicate in degree achievements, which do not show telicity, can show telicity in certain context. In order to explain this kind of telicity variability systematically, I will discuss Pustejovsky's (1995) Generative Lexicon Theory and the co-composition generative mechanism in section 2. In section 3, I will discuss Hay, Kennedy, and Levin's (1999) telicity variability and Lee Chungmin's (2000) modified extended lexical structure. In section 4, I will introduce Pustejovsky's (2000) event structures and modify them a little. And I will argue that the modified event structures can explain the telicity variability with the co-composition generative mechanism efficiently.

1. 서론

Hay/Kennedy/Levin(1999)은 정도달성동사를 무한척도 술어(open-range predicate)와 완결성을 보이는 유한척도 술어(closed-range predicate)로 분류하여 구별한다.

- (1) a. Kim is lengthening the rope. \Rightarrow Kim has lengthened the rope.
b. They are widening the road. \Rightarrow They have widened the road.
- (2) a. Kim is straightening the rope. \nRightarrow Kim has straightened the rope.
b. They are emptying the glass. \nRightarrow They have emptied the glass.

(1)의 *lengthen*, *widen* 등은 무한척도 술어로 완결성이 없으므로, 진행형의 의미가 완료형의 의미를 함의한다. 반면 (2)의 *straight*, *empty* 등은 척도상의 최대치를 당연 값으로 취하는 유한척도 술어로 완결성을 보여, 진행형의 의미가 완료형의 의미를 함의하지 않는다. 그러나 완결성이 없는 무한척도 술어도 다음과 같이 유한척도표현과 같이 쓰이면 완결성을 보인다.

- (3) a. Kim is lengthening the rope 5 inches.
 ⇒ Kim has lengthened the rope 5 inches.
 b. They are widening the road 5 meters.
 ⇒ They have widened the road 5 meters.

무한척도 술어 *lengthen*, *widen* 등이 (3)에서 보듯 유한척도표현 5인치, 5미터 등과 같이 쓰일 때는 완결성을 보여, 진행형의 의미가 완료형의 의미를 함의하지 못한다. 특히 다음과 같은 경우 같은 무한척도 술어이지만, 맥락 의존적(context-dependent)이어서 이런 완결성 교체 현상이 일어난다.

- (4) a. Kim is lowering the heat. ⇒ Kim has lowered the heat.
 b. Kim is lowering the blind. ⇒ Kim has lowered the blind.

*lowering*은 무한척도 술어로 (4a)처럼 완결성이 없어서, 진행형의 의미가 완료형의 의미를 함의한다. 그러나 (4b)처럼 *blind*와 같이 쓰일 경우 *blind*에 대해 사회적 맥락에 따라 관습적으로 정해진 길이가 있는 것으로 보고 유한척도로 해석된다. 즉 완결성을 보여, 진행형의 의미가 완료형의 의미를 함의하지 못한다. 이처럼 같은 무한척도 술어라도 맥락 의존적으로 어떤 명사구와 쓰이느냐에 따라 무한척도로도 유한척도로도 해석되어 완결성 교체현상을 보인다. 즉 Hay/Kennedy/Levin (1999)은 완결성이란 달성동사와 완성동사와 같은 술어의 의미에 따라 정해지는 것이 아니라, 그 술어가 쓰이는 맥락에 따라 유한척도로 해석되느냐 무한척도로 해석되느냐에 따라 정해지는 것으로 보았다.

본 논문에서는 이와 같은 완결성 교체현상을 행위술어로도 완성술어로도 쓰이는 논리적 다의(logical polysemy) 현상으로 보아,

Pustejovsky(1995)의 생성어휘부(Generative Lexicon) 이론에 입각하여 공동-합성(co-composition)의 개념과 함께, Pustejovsky(2000)의 양분대립(binary opposition)에 따른 복합사건구조를 응용하여 설명해보고자 한다. 먼저 2절에서는 Pustejovsky(1995)의 생성어휘부이론의 기본개념과 공동합성과 같은 생성기제에 대해 알아보려고 한다. 다음 3절에서는 Hay/Kennedy/Levin(1999)에서 제기한 완결성 교체현상과 이정민(2002)이 주장한 공동-합성원리와 당연논항 설정에 따른 수정확대어휘의미구조에 대해 알아보고 그 장단점을 논하고자 한다. 또 완결성 교체현상을 공동-합성에 의해 완결성을 보이는 경우는 행위술어가 완성술어로 유형변경이 이루어진 경우로 일종의 논리적 다의 현상으로 설명하고자 한다. 다음 4절에서는 논리적 다의 현상의 일종인 이와 같은 완결성 교체현상을 보다 체계적으로 사건구조로 설명해보기 위해 Pustejovsky(2000)의 양분대립에 따른 사건구조에 대해 알아보고, 이를 행위술어의 단순과정사건구조와 완성술어의 복합사건구조로 구별하여 설명하고자 한다. 즉 명시적인 당연논항과 공동-합성원리에 의해 완성술어로 유형변경이 이루어져 완결성을 이룬 경우는 양분대립이 성립하여 새로운 결과의 상태사건이 만들어져, 전체적으로 중점인 행위사건과 새로운 결과의 상태사건으로 이루어진 복합사건구조를 지닌 것으로 설명하고자 한다. 반면 명시적인 당연논항이 없어 완결성을 이루지 못한 경우는 중점인 행위사건이 단순히 연속되고 있는 과정의 단순사건구조를 지닌 경우로 설명하고자 한다.

2. Pustejovsky(1995)의 생성어휘부 이론과 공동-합성원리

Pustejovsky(1995)의 생성어휘부 이론은 동사의 기본의미를 사건구조(Event Structure), 논항구조(Argument Structure), 특질구조(Qualia Structure)로 기술하고, 그 동사가 취하는 명사 논항의 특성에 따라 그 동사의 의미를 확장하여 기술한다. 먼저 사건구조는 그 동사가 나타내는 사태(event)의 상적인(aspectual) 특성을 기술하는 하위구조이다. 동사가 나타내는 사건은 하나의 단일 사건으로 구성되거나, 아니면 두 개 이상의 하위사건으로 구성될 수 있다. 일반적으로 하위사건은 과정(process)과 상태(state), 그리고 전이(transition)로 나누어질 수 있다. 만약 동사가 복합사건을 의미할 경우 사건구조는 두 개의 하위사건과

그 사건들 사이의 선후관계(restriction), 그리고 그 하위사건들 사이의 현저성(prominence) 차이를 나타내는 중점(Head)으로 이루어진다.

- (5) a. Mary quietly drew a picture.
b. Mary left the town for two weeks.

(5)의 draw와 leave동사는 과정과 상태의 두 개의 하위사건으로 이루어진 복합사건구조를 지니는 데, 둘 다 과정이 먼저 일어나고 그 후 결과 상태가 이루어지는 선후관계를 이룬다. 그러나 하위사건사이의 현저성을 보면, draw의 경우 부사 quietly는 그림 그리는 과정을 수식하므로 중점이 과정에 있다. 반면 leave의 경우 부사 for two weeks는 마을을 떠나는 과정이 아니라 떠난 기간이 2주간이라는 의미로, 결과 상태를 수식하므로 중점이 떠난 결과상태에 있다.

논항구조는 동사의 통사적인 논항 수와 그 논항의 자질로 표시된다. 이때 논항구조에 나타나는 논항으로는 필수적인 논항(true argument), 당연논항(default argument), 그리고 그림자 논항(shadow argument)과 부가어(true adjunct)로 나눌 수 있다.¹⁾ 특질구조란 바로 이러한 사건구조와 논항구조에 나타난 하위사건들과 논항들 사이의 관계를 나타내는 구조이다. 특질구조는 형상역(Formal), 작인역(Agentive), 구성역(Constitutive), 기능역(Telic)으로 구성된다. 형상역은 동사의 결과적인 상태와 정적인 측면을 나타내고, 작인역은 그 동사가 나타내는 상태의 기원과 발생에 관계된 것으로 주로 사건구조의 하위사건 중에서 과정(process)과 관련된다. 구성역은 주어진 대상과 그 대상의 구성성분 또는 부분의 관계를 나타내며, 기능역은 대상의 목적과 기능을 표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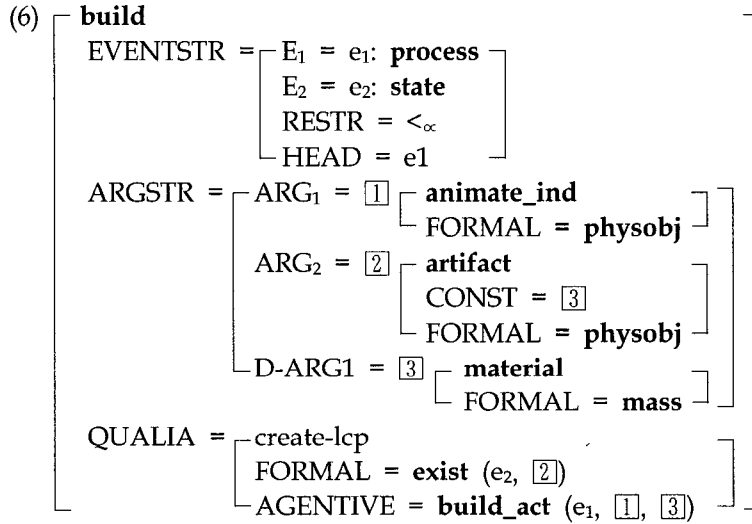
¹⁾논항구조에서 각각의 논항에 대한 설명은 다음과 같다.

- (i) a. John built the house *out of bricks*.
b. Mary buttered her toast *with an expensive butter*.

필수논항은 논리적으로도 통사적으로도 반드시 필요한 논항으로, 위 예문에서 주어와 목적어 논항이 이에 해당된다. 당연논항은 논리적으로는 필요하지만, 통사적으로는 수의적인 논항으로 (ia)의 *out of brick*이 이에 해당된다. 그림자 논항은 술어의 하위개념인 논항으로, 논리적으로도 통사적으로도 수의적인 논항이다. 단 (ib)의 *with an expensive butter*처럼 통사적으로 표현될 경우 반드시 특정수식표현을 동반해야만 한다. 부가어는 장소나 시간 등을 나타내는 표현들을 말한다.

시한다.

Pustejovsky(1995:82)의 이러한 의미구조의 예를 들어보면 다음과 같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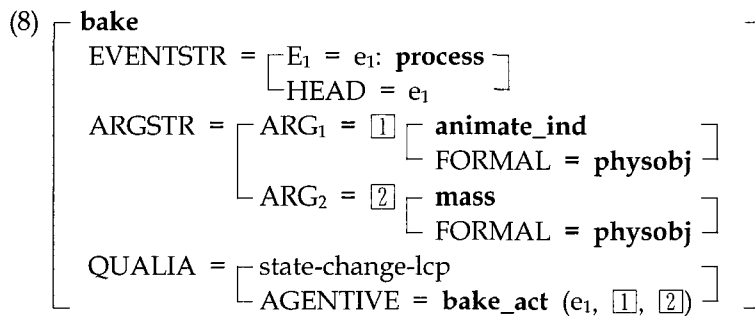
동사 **build**가 나타내는 사건구조는 과정과 상태로 이루어진 복합사건인데, 그 선후관계는 건물을 짓는 행위인 과정 e₁이 먼저 일어나고, 건물이 생겨나는 상태인 e₂가 그 후에 일어나는 선후관계 <_α로 표시된다. 하위사건사이의 현저성을 나타내는 중점은 과정 e₁에 있다. 논항구조의 필수논항은 두 개로 논항₁은 생명이 있는 개체(animate individual)로, 형상역은 물리적 물체(physical object)이다. 논항₂는 인공물(artifact)로 구성역은 물질(mass)인 재료로 구성되었고, 형상역은 물리적 물체이다. 당연논항은 물질(mass)인 재료이다. 특질구조에서 사건구조와 논항구조에 나타난 하위사건들과 논항들 사이의 관계는 창조의 어휘적 개념유형(create lexical conceptual paradigm)이다. 동사의 결과적인 상태와 정적인 측면을 나타내는 형상역은 인공물이 존재하게 되는 e₂가 되며, 동사가 나타내는 사태의 기원과 발생과 관련된 작인역은 재료로 건물을 짓는 행위인 e₁이 된다.

한편 Pustejovsky(1995:122)는 다음과 같이 **bake** 동사가 상태변화의 의미로도, 창조의 의미로도 쓰이는 다의성에 대해 나열식 방식이 아니라, 하나의 동사가 목적어 등과 같은 보충어(complement)에 따라 다

른 의미로 쓰일 수 있는 공동-합성(co-composition)의 방식으로 설명한다.²⁾

- (7) a. Mary baked the potato.
- b. Mary baked the cake.

생성어휘부 이론에서는 대부분의 나열적 어휘 의미이론들이 우연적 다의성과 논리적 다의성의 차이를 구별하여 설명하지 못하고 있다고 비판한다. 따라서 Pustejovsky(1995:122)는 bake 동사의 다의적인 두 의미가 동사의 의미와 목적어의 의미가 긴밀하고 체계적인 관계를 맺고 있다는 직관에 기초하여, 두 의미가 결합하여 공동으로 동사구의 의미를 만들어 낸다는 공동-합성을 제안하고 있다. 이때 동사 bake의 어휘적 의미는 행위사건인 과정(process)으로서 균질적인 상태 변화이나, 같이 쓰이는 목적어가 자연물인 감자가 아니라, 인공물(artifact)인 cake일 때 동사의 의미와 목적어 인공물의 의미가 공동-합성되어 창조적 의미를 생성하게 된다. 즉 Pustejovsky(1995:123)는 다음 (8)처럼 동사 *bake*의 기본적 의미는 단일한 행위사건인 과정으로 나타낸다.



²⁾목적어뿐만 아니라 다음과 같이 이동동사에서 착점(goal)의 전치사구도 보충어로서 공동합성으로 설명한다.

- (i) a. The bottle is floating in the river.
- b. The bottle floated *under the bridge*.

(ia)의 동사 float는 단순히 이동하는 행위동사의 의미로 쓰였지만, (ib)의 동사 float는 이동되어 가는 착점 *under the bridge*와 공동-합성하여 이동 완료된 달성동사의 의미로 쓰인다.

동사 *bake*가 나타내는 사건구조는 굽는 행위인 과정 e_1 으로 표시되며, 당연히 중점도 과정 e_1 에 있다. 논항구조의 필수논항은 두 개로, 논항₁은 생명이 있는 개체로, 형상역은 물리적 물체이다. 논항₂는 물질(mass)로, 형상역은 마찬가지로 물리적 물체이다. 특질구조에서 사건구조와 논항구조에 나타난 논항들 사이의 관계는 상태변화의 어휘적 개념유형(state-change-lexical conceptual paradigm)이다. 동사가 나타내는 사태의 기원과 발생과 관련된 작인역은 개체 논항₁이 물질 논항₂를 굽는 행위인 e_1 이 된다. 따라서 (7a)처럼 동사와 결합하는 목적어가 자연물인 감자일 경우 위의 의미가 그대로 투사된다.

한편 인공물과 공동-합성될 때 굽는 행위를 나타내는 과정과 결과로 인공물이 존재하게 되는 상태사건인 창조로의 복합사건구조를 지니게 되어 창조의 완성동사의 의미가 된다. 먼저 공동합성의 생성기계(generative mechanisms)를 살펴보자. 자연물이 아닌 인공물 *cake*의 어휘구조는 대략 다음과 같다.

$$(9) \left[\begin{array}{l} \mathbf{cake} \\ \text{ARGSTR} = \left[\begin{array}{l} \text{ARG}_1 = x: \text{food_ind} \\ \text{D-ARG}_1 = y: \text{mass} \end{array} \right] \\ \text{QUALIA} = \left[\begin{array}{l} \text{CONST} = y \\ \text{FORMAL} = x \\ \text{TELIC} = \text{eat}(e_2, z, x) \\ \text{AGENTIVE} = \mathbf{bake_act}(e_1, w, y) \end{array} \right] \end{array} \right]$$

보통명사 *cake*의 논항구조는 x 라는 음식물 개체로, 당연논항으로 y 라는 물질인 재료가 있다. 특질구조는 물질인 y 로 구성되어있으며, 형상역은 x 라는 음식물 개체이며, 목적을 나타내는 기능역은 음식물은 먹는데 사용되므로 임의의 개체 z 가 음식물 x 를 먹는 사건 e_2 로 표시된다. 동사의 나타내는 사태의 기원과 발생과 관련된 작인역은 임의의 개체 w 가 물질 y 로 굽는 행위사건인 e_1 으로 표시된다. 이때 이와 같은 인공물 *cake*이 동사 *bake*와 결합할 경우 특질구조속의 작인역이 같다는 데 입각하여 다음과 같은 특질구조 통합(qualia unification)과정이 이루어진다.

- (10) FUNCTIONAL APPLICATION WITH QUALIA UNIFICATION:
 For two expressions, α , of type $\langle a, b \rangle$, and β , of type a ,

with qualia structures QS_α and QS_β , respectively, then, if there is a qualia value shared by α and β , $[QS_\alpha \cdots [Qi = \gamma]]$ and $[QS_\beta \cdots [Qi = \gamma]]$, then we can define the qualia unification of QS_α and QS_β , $QS_\alpha \cap QS_\beta$, as the unique greatest lower bound of these two qualia structures. Furthermore, $\alpha(\beta)$ is of type b with $QS_{\alpha(\beta)} = QS_\alpha \cap QS_\beta$.

<a, b>유형과 특질구조 QS_α 를 갖는 표현 α 와, 유형 a 와 특질구조 QS_β 를 갖는 표현 β 가 있어, 그 특질구조가 $[QS_\alpha \cdots [Qi = \gamma]]$ 와 $[QS_\beta \cdots [Qi = \gamma]]$ 로서 공통일 경우, $\alpha(\beta) \rightarrow b$ 유형 (동사구 유형)이라는 함수가 적용되고, $(QS_{\alpha(\beta)} = QS_\alpha \cap QS_\beta)$ 라는 특질구조 통합이 이루어진다는 설명이다. 그 결과 다음과 같이 동사구 *bake a cake*이 공동-합성된다.

$$(11) \left[\begin{array}{l} \mathbf{bake\ a\ cake} \\ \mathbf{EVENTSTR} = \left[\begin{array}{l} E_1 = e_1: \mathbf{process} \\ E_2 = e_2: \mathbf{state} \\ \mathbf{RESTR} = <_{\infty} \\ \mathbf{HEAD} = e_1 \end{array} \right] \\ \mathbf{ARGSTR} = \mathbf{ARG}_1 = \boxed{1} \left[\begin{array}{l} \mathbf{animate_ind} \\ \mathbf{FORMAL} = \mathbf{physobj} \end{array} \right] \\ \mathbf{ARG}_2 = \boxed{2} \left[\begin{array}{l} \mathbf{artifact} \\ \mathbf{CONST} = \boxed{3} \\ \mathbf{FORMAL} = \mathbf{physobj} \end{array} \right] \\ \mathbf{D-ARG}_1 = \boxed{3} \left[\begin{array}{l} \mathbf{material} \\ \mathbf{FORMAL} = \mathbf{mass} \end{array} \right] \\ \mathbf{QUALIA} = \left[\begin{array}{l} \mathbf{create-lcp} \\ \mathbf{FORMAL} = \mathbf{exist} (e_2, \boxed{2}) \\ \mathbf{AGENTIVE} = \mathbf{bake_act} (e_1, \boxed{1}, \boxed{3}) \end{array} \right] \end{array} \right]$$

논항구조에서 제2 논항이 달라져, 논항₂는 인공물인 ②가 되며, 이 인공물은 재료인 ③으로 구성되며, 형상은 물리적 대상이다. 또 당연 논항₁은 재료인 ③으로 형상은 물질이다. 또 사건구조에는 $E_2 = e_2$: 결과상태가 추가된다. 이밖에 특질구조도 형상역으로 인공물인 ②가 존재하게 된다는 결과상태 사건 e_2 가 첨가되면서 창조개념유형으로 달라진다. 여기서 중요한 것은 목적어의 의미 정보가 관련 동사에 전수

되어 동사를 논항으로 취해 그 사건 유형을 전이(shift)시킨다는 점이다. 그리하여 목적어와 동사 사이의 관계를 생성적으로 유연성 있게 합성함으로써 완성적 특질을 보인다. 이와 같은 생성기제는 종래의 의미역할 중심의 논항구조만의 분석으로는 논리적 다의성을 제대로 설명할 수 없었는데, 상태변화 동사와 창조 동사의 어휘적 특성을 잘 나타낼 뿐만 아니라, 이 두 가지 의미가 겹치는 다의 동사의 경우를 잘 포착하여 생성적으로 잘 설명할 수 있다.

3. 완결성 교체(telicity variability)현상과 공동-합성

Hay/Kennedy/Levin(1999)은 술어가 기술하는 사건의 완결성(telicity) 여부를 살펴보는 방법으로 세 가지를 소개하고 있다. 첫째 미완료 역설(imperfective paradox)로 알려진 현상으로, 앞 서론에서도 언급한 것처럼 비완결성 술어는 진행형의 의미가 완료형의 의미를 함의하지만, 완결성 술어는 이런 함의가 성립하지 않는다.

- (12) a. Kim is singing. ⇒ Kim has sung.
- b. Kim is writing a song. ⇏ Kim has written a song.

(12a) sing과 같은 행위동사는 행위를 하고 난 후 그 결과상태에 대한 완결성이 없으므로, 진행형의 의미가 완료형의 의미를 함의한다. 반면 (12a)의 write와 같은 창조동사는 완결성이 있으나, 진행형의 경우 아직 완결을 이루지 못한 경우이므로 완료형의 의미를 함의할 수 없다.

둘째, 비완결성 술어는 기간 부가어(durative adverbial)인 for-전치사구가 수식하는데 비하여, 완결성 술어는 시간한도 부가어(time span adverbial)인 in-전치사구가 수식한다.

- (13) a. Pug snoozed for/?in an hour.
- b. Pug destroyed the couch ?for/in an hour.

(13a)의 snooze와 같은 행위술어는 완결성이 없으므로, 기간 부가어 for an hour와 같이 쓰인다. 반면 (13b)의 파괴동사 destroy는 완결성

이 있으므로, 시간 한도 부가어 in an hour와 같이 쓰인다.

셋째 비완결성 술어는 almost와 공기하는 맥락에서 해석상의 중의성을 보이지 않는데 비하여, 완결성 술어는 중의성을 보인다.

- (14) a. Lee almost recited poetry.
b. Lee almost read *Eugene Onegin*.

(14a)의 recite는 완결성이 없는 행위술어로 almost는 시 낭송하는 행위만을 수식하므로, ‘시를 거의 낭송할 뻔했으나, 실제로는 낭송하지 않았다’는 의미 하나만 있다. 반면 (14b)의 read는 완결성이 있는 술어로 almost의 수식범위에 따라 두 가지 의미의 중의성을 보인다. 즉 almost가 읽는 행위를 수식하는 경우, ‘*Eugene Onegin*을 거의 읽을 뻔했으나, 실제로는 읽지 않았다’는 의미로 해석되고, almost가 결과상태를 수식할 경우 ‘*Eugene Onegin*을 거의 다 읽을 뻔했으나, 실제로는 다 읽지는 않았다’는 의미로 해석된다.

한편 Hay/Kennedy/Levin(1999)은 술어에 따른 완결성이 다음처럼 같이 쓰이는 표현에 따라 달라질 수 있다고 지적한다.

- (15) a. Pat is eating rice. ⇒ Pat has eaten rice.
b. Pat is eating a plum. ⇏ Pat has eaten a plum.

소비동사 eat가 (15a)처럼 물질명사와 쓰일 때는 완결성이 없는 행위술어로 쓰여 진행형의 의미가 완료형의 의미를 함의한다. 그러나 (15b)처럼 수량 표현이 가능한 보통명사와 쓰일 때는 완결성을 보이는 완성술어로 쓰여 진행형의 의미가 완료형의 의미를 함의하지 않는다. 또 완결성이 없는 무한척도 술어도 다음과 같이 유한척도표현과 같이 쓰이면 완결성을 보인다.

- (16) a. Kim is lengthening the rope 5 inches.
⇒ Kim has lengthened the rope 5 inches.
b. The lake is cooling 4 degrees.
⇒ The lake has cooled 4 degrees.

무한척도 술어 *lengthen*, *cool* 등이 (16)에서 보듯 유한척도표현 5인치, 4도 등과 같이 쓰일 때는 완결성을 보여, 진행형의 의미가 완료형의 의미를 함의하지 못한다. 특히 다음과 같이 맥락 의존적(context-dependent)이어서 무한척도 술어이지만, 완결성을 보이는 경우도 있다.

- (17) a. The teacher almost lengthened the exam.
- b. The tailor almost lengthened my pants.

무한척도 정도달성술어 *lengthen*는 (17a)처럼 *the exam*과 같이 쓰일 때는 완결성이 없는 술어로 쓰여, 시험시간을 거의 늘릴 뻔했지만 실제로 늘리지 않았다는 한가지 해석만 가능하지만 (17b)처럼 *my pants*와 같이 쓰일 때는 *pants*에 대해 사회적 맥락에 따라 관습적으로 정해진 길이가 있는 것으로 보고 유한척도로 해석된다. 즉 완결성을 보이는 완성술어로 쓰여 *almost*의 수식범위에 따라 두 가지 의미로 해석되는 중의성을 보인다. 이처럼 같은 무한척도 술어라도 맥락 의존적으로 (17)처럼 어떤 명사구와 쓰였느냐에 따라 무한척도로도 유한척도로도 해석되어 완결성 교체현상을 보인다. 즉 Hay/Kennedy/Levin(1999)은 완결성이란 달성동사와 완성동사와 같은 술어의 의미에 따라 정해지는 것이 아니라, 그 술어가 쓰이는 맥락에 따라 유한척도로 해석되느냐 무한척도로 해석되느냐에 따라 정해지는 것으로 보았다.³⁾

이처럼 Hay/Kennedy/Levin(1999)은 달성술어의 경우 척도표현에 따라 무한척도 술어와 유한척도 술어로 분류하여 유한척도 술어의 경우만 완결성이 가능한 것으로 보았다. 또 무한척도 술어도 유한척도표현과 같이 쓰이거나 맥락에 따라 완결성을 보이므로 완결성은 고정된

³⁾Hay/Kennedy/Levin(1999)은 위와 같이 맥락적으로 정해지는 완결성도 맥락에 따라 취소될 수 있는 함축으로 본다.

- (i) Kim straightened the rope, but not completely.

*straighten*은 어휘 그 자체 의미에서 척도상의 최대치를 당연 값으로 취하는 유한척도술어로 완결성을 함의하는 것으로 정의되어왔다. 그러나 (i)에서 보듯 그 완결성을 부정해도 모순이 생기지 않는다. 즉 최대치의 당연 값에 의한 완결성은 취소가 가능한 대화상의 함축이라는 주장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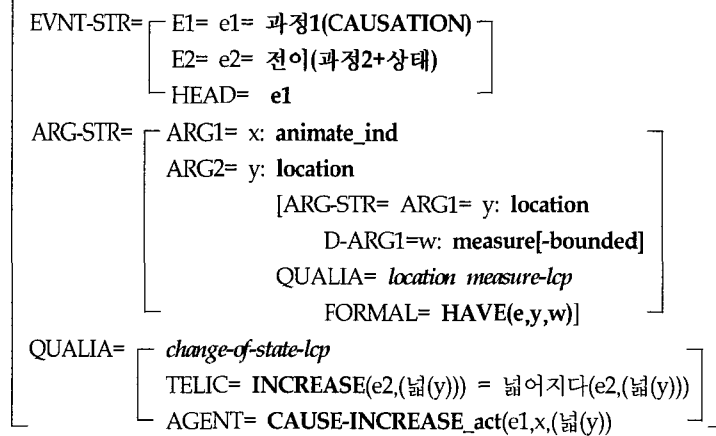
것이 아니라 경우에 따라 변할 수 있는 완결성 교체현상을 보였다. 그러나 Hay/Kennedy/Levin(1999)은 이와 같은 완결성 교체현상을 분류하여 기술하고만 있지, 이들 술어들이 어떻게 완결성을 보이는 완성술어로 해석되며, 완결성을 보이지 않는 행위술어로 해석되는지 구체적인 설명이 없다. 특히 완결성 교체현상을 그 술어가 쓰이는 맥락에 따라 정해지는 것으로 보고 있기 때문에 술어의 상적 의미에 따른 행위술어와 완성술어의 분류를 무시하고 있는 문제점이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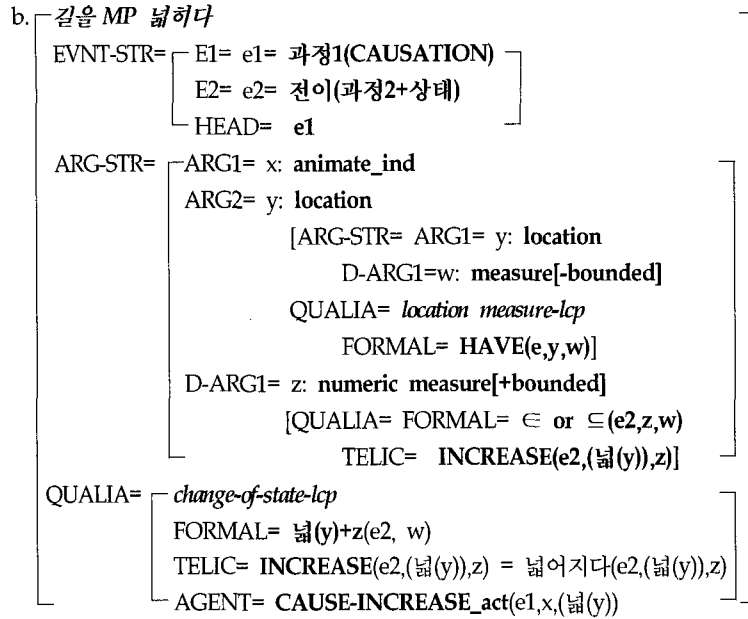
한편 이정민(2002)은 한국어 정도 달성술어들이 갖는 완결성 교체현상을 근거로 Pustejovsky(1995)의 어휘의미구조를 수정 확대하여 제시하고 있다. 예를 들어, ‘넓히다’류의 무한척도 술어의 어휘의미구조를 기술하는데 있어, 술어가 갖는 완결성은 다음 (18b)처럼 명시적으로 척도를 제한하는 수량 표현에 의해 도입되는 것으로 본다. 이러한 수량 표현을 논항구조에서 일종의 당연논항으로 설정하여, 공동-합성(co-composition)을 확대하여 적용하고 있다. 따라서, 당연 논항이 통사적으로 실현되는지의 여부에 따라 완결성 교체가 일어나는 것으로 본다.

(18) a. 인부들이 1년 동안 그 길을 (*?10미터) 넓혔다.

b. 인부들이 1년 만에 그 길을 ?(10미터) 넓혔다.

(19) a. (길을 ϕ) 넓히다





무한척도의 정도달성술어 '넓히다'를 상태변화 술어로 보고, 일단 사건구조는 사역적인 행위사건 e1과 그 결과로 전이되는 사건 e2의 복합 사건구조로 나타낸다. 단 (19a)처럼 명시적으로 척도를 제한하는 수량 표현이 나타나지 않은 경우, 결과로 전이되는 사건 e2는 상태변화의 특질구조속에 길이 넓어진다는 목적을 나타내는 기능역(TELIC)으로만 표시하여 완결성을 나타내지 않는다. 반면 (19b)처럼 10미터와 같은 명시적으로 척도를 제한하는 수량 표현이 통사적으로 나타난 경우, 논항구조속에 별도의 당연논항을 설정하여, [+bound]인 구체적인 숫자 z로 표시한다. 또 결과로 전이되는 사건 e2는 논항구조속의 당연논항에 대한 특질구조속에서 뿐만 아니라, 전체의 상태변화의 특질구조속에서도 길이 길이가 z 만큼 넓어지는 형상역(FOMAL)으로도, 길이 z 만큼 넓어진다는 목적을 나타내는 기능역(TELIC)으로도 표시되므로 완결성을 나타낸다. 즉 척도상의 특정 값을 나타내는 당연 논항의 기능역(TELIC)과 이를 논항 구조의 일부로 받아들이는 술어의 기능역(TELIC)이 공통적인 의미정보를 갖는 공동-합성에 근거하여 특질구조 통합(Qualia-Unification)이 일어나, 완결성 해석이 도출되는 것으로 본다.

이처럼 이정민(2002)은 척도상의 최대치를 논항구조속의 당연논항

으로 설정하여, 특질구조속에 결과로 전이되는 사건 e_2 를 형상구조와 기능역으로 표시하여 완결성을 잘 나타내고 있다. 그러나 이와 같은 설명에서 한국어 술어 ‘넓히다’를 기본적으로 상태변화의 복합사건구조를 지닌 술어로 보는 데서 오는 문제점이 있다. 즉 (19a)처럼 완결성을 나타내지 못하는 경우와 (19b)처럼 완결성을 나타내는 경우의 사건구조를 똑같이 전이사건 e_2 로 나타내고 있기 때문에 완결성 여부에 따른 술어의 논리적 다의성을 사건구조로는 전혀 구별할 수 없는 문제점이 있다.⁴⁾ 따라서 본 논문에서는 명시적으로 척도를 제한하는 수량 표현이 통사적으로 나타난 경우는 공동합성에 의해 복합사건구조를 지닌 완성술어로 전환된 것으로 보고, 통사적으로 나타나지 않은 경우는 원래의 단순사건구조인 행위술어로 보고 논리적 다의성으로 설명하고자 한다.⁵⁾ 이와 같은 완성술어의 복합사건구조와 행위술어의 단순사건구조에 대해서는 다음 4절에서 자세히 논하고자 한다.

4. 완결성 교체현상에 의한 논리적 다의성과 사건구조

본 절에서는 Pustejovsky(2000)의 대립에 따른 사건구조에 대해 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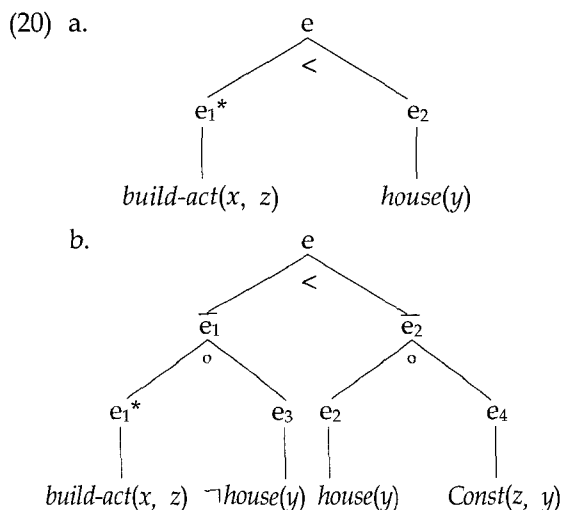
⁴⁾익명의 평자도 이 문제는 어휘 의미구조상의 문제가 아니고 의미합성의 문제라는 입장을 취하여, 문맥적 의미합성의 차이를 어휘적으로 수용하기 위하여, 어휘 의미차원에서 차별되는 동사들(build vs. run)의 사건구조상의 차이를 무시하게 되었다고 지적하고 있다. 그러나 본 논문에서는 이를 논리적 다의성으로 보고 과정의 행위사건구조와 과정과 결과 상태가 결합한 복합사건의 완성사건구조로 구별하여 설명하고자 하는 입장이다.

⁵⁾Van Vallin/LaPolla(1997)도 다음과 같이 행위술어가 완성술어로도 쓰일 수 있다고 보았다.

- (i) a. He walked in the park for ten minutes.
- b. He ate spaghetti for ten minutes.
- (ii) a. He walked to the park in ten minutes.
- b. He ate a plate of spaghetti in ten minutes.

(ia)에 쓰인 행위술어 walk는 장소의 부가어 in the park가 아니라, (iia)처럼 착점(goal)의 목적지 to the park와 같이 쓰이면 완성술어가 된다. 또 (ib)에 쓰인 행위동사 eat도 목적어가 물질명사 spaghetti와 beer가 아니라, (iib)처럼 한정된 양을 나타내는 a plate of spaghetti가 되면 완성술어가 된다. Van Vallin/LaPolla(1997:4.2-3)는 이를 특별히 행위-완성술어(active accomplishment)로 분류하여 구별한다.

아보고, 완성술어와 행위술어의 사건구조로 구별하여 수정하고, 앞에서 살펴본 완결성교체현상에 의한 논리적 다의성을 대립에 따른 사건구조로 설명하고자 한다. 먼저 Pustejovsky(2000)의 사건구조와 대립이론에서는 build와 같은 창조동사의 사건구조에 대한 도식을 다음 (20a)에서 (20b)로 수정하였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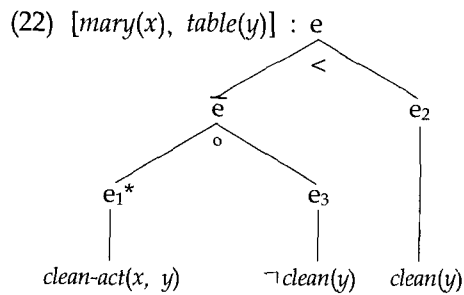


(20a)의 사건구조는 건물을 짓는 행위인 중점 사건 e_1 이 먼저 일어나고, 건물이 생겨나는 상태 사건 e_2 가 그 후에 일어나는 선후관계 < 로 표시되어 있었다. 이와 같은 사건구조는 재료인 z 와 인공물인 집 y 가 어떠한 관계에 놓여 있는지에 대한 설명이 없고, 더구나 build라는 행위를 해서 어떻게 없던 집이 만들어지는 지에 대해서도 설명이 없다. 따라서 (20b)처럼 ‘행위자 x 가 재료 z 로 집을 지었다[*build-act(x, z)*]’는 중점사건 e_1 외에 그 행위를 할 당시에는 집이 없었다[$\neg house(y)$]는 부대상황 사건 e_3 를 첨가하였다. 또 그 행위를 한 결과 집이 만들어졌다[*house(y)*]는 결과 상태 사건 e_2 외에 그 결과 상태에 대한 부대상황으로 그 집은 재료 z 로 구성되었다[*Const(z, y)*]는 구성성분사건 e_4 를 첨가하여 수정하였다. 여기서 주목할 사실은 사건 e_1 이 시작될 당시에는 집이 없었다는 부대상황 e_3 와, 사건 e_1 이 완료된 후에는 집이 만들어졌다 는 결과 상태 e_2 가 서로 양분대립(binary opposition)으로 정의되고 있다는 점이다. 따라서 다음과 같이 창조동사나 상태변화 동사에서 동

사가 서술하는 사물의 상태를 의미적으로 양분대립의 개념을 도입하여 기술하고 있다.

- (21) a. Mary built a house.
b. Mary cleaned the table.

(21a)에서는 논항 Mary는 변하지 않고 지속되지만, 동사 build에 의해서 영향 받는 목적어 집은 변화가 있다. 즉 원래 집이 없었는데, 집이 있게 된다는 변화로 일종의 양분대립이 성립된다. (21b)에서는 논항 Mary와 table 자체는 변하지 않고 지속되지만 서술어 clean에 의해서 영향받는 목적어 table의 상태는 깨끗하지 않은 상태에서 깨끗한 상태로 변하는 양분대립의 변화가 있다. 이를 다음과 같은 사건구조로 도식화해서 나타낸다.



이때 개체 x 가 Mary이고, 개체 y 가 table이라는 서술 $[mary(x), table(y)]$ 은 중점사건인 청소하는 행위사건 $e_1: [clean-act(x, y)]$ 보다 넓은 적용범위(wide scope)를 가지므로 논항 자체는 변하지 않고 지속되지만, 테이블이 깨끗하지 않은 상태 $[\neg clean(y)]$ 라는 사건 e_3 는 상태변화 동사의 사건 e_1 의 적용범위에 들어감으로 상태변화의 문(gate)이 열려 그 후 테이블이 깨끗해졌다 $[clean(y)]$ 는 결과 상태 e_2 로 변한다.⁶⁾

⁶⁾ 조금 더 복잡한 경우의 예는 다음과 같다.

- (i) a. Mary cleaned the dirty table.
b. Mary built a two-story brick hous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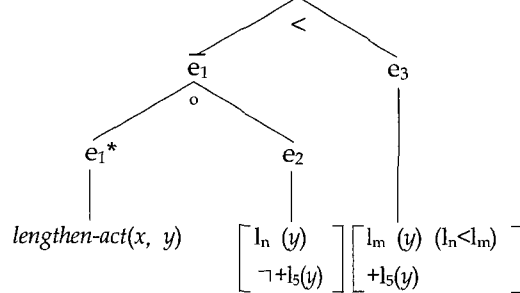
(ia)의 경우 (21a)의 경우와 같으나, 테이블이 더러웠다 $[dirty(y)]$ 는 부대상황이 중점사건 깨끗이 청소하는 행위 e_1 의 적용범위에 들어감으로 상태변화의

이처럼 Pustejovsky(2000)의 사건구조와 대립 이론에서는 적용범위를 설정하여 넓은 범위를 지닌 사건은 그 사건에 참여한 논항 자체가 변화하지 않고 지속되나, 좁은 범위를 지닌 당시 상태에 대한 사건은 상태변화의 문이 열려 변화된다는 사건지속구조(Event Persistence Structure)로 잘 설명하고 있다. 더욱이 상태변화를 양분대립에 따른 결과 상태로 별도의 사건구조로 설정하여 그 상태변화를 잘 나타내고 있다. 그러나 이와 같은 상태변화는 완결성을 보이는 완성술어에 한정되어 있다. 따라서 완결성 교체현상에 의한 논리적 다의성을 명시적으로 완결성을 나타내는 주는 표현과 통사적으로 같이 쓰일 경우 이를 당연논항으로 보고 공동합성원리에 의해 완성술어로 전성되어 복합사건구조를 지닌 것으로 설명하고, 통사적으로 같이 쓰이지 않을 경우 원래의 행위술어로 보고 과정의 단순사건구조가 지속되고 있는 것으로 구별하여 설명하고자 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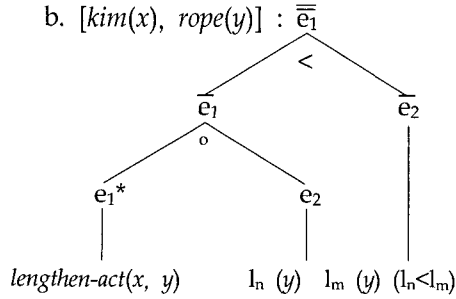
먼저 완결성이 없는 무한척도 술어가 명시적인 유한척도표현과 통사적으로 같이 쓰여 완결성을 보이는 논리적 다의성의 경우를 살펴보자.

- (23) a. Kim lengthened the rope 5 inches.
- b. Kim lengthened the rope.

(24) a. $[kim(x), rope(y)] : e$



문이 열려 새로운 결과 상태사건 e_2 에 더럽지 않은 상태라는 $[\neg dirty(y)]$ 가 더 첨가된다. 또 (ib)의 경우는 집이 없었는데, 그 행위를 한 결과 집이 만들어졌다는 것은 (21b)와 마찬가지로, 2층이 아니었다는 $[\neg 2-story(y)]$ 와, 2층집이 되었다는 $[2-story(y)]$ 가 더 첨가된다.



(23)의 lengthen은 무한척도 술어로 (23a)처럼 5 인치와 같은 유한척도표현과 통사적으로 같이 쓰이면 공동합성에 의해 완결성을 보이는 완성술어로 전성된다. 이에 대한 사건구조는 (24a)로 개체 x가 Kim이고, 개체 y가 rope라는 서술 $[kim(x), rope(y)]$ 은 중점사건인 길이를 늘이는 행위사건 $e_1: [lengthen-act(x, y)]$ 보다 넓은 적용범위를 가지므로 논항 자체는 변화지 않고 지속된다. 단 중점행위 사건 당시의 부대상황인 e_2 는 로프 y의 길이가 임의의 길이인 l_n 으로 기술한다. 또 그 후의 상태변화 상황은 그 보다 임의의 길이가 늘어난 l_m 으로 기술한다. 이때 통사적으로 유한척도표현 5인치와 같이 쓰여 명시적으로 5인치가 늘어난 상태변화를 나타내 주고 있으므로, 상태변화 상황도 길이가 5인치 늘어났다는 $[+l_5(y)]$ 가 더 첨가되고, 중점행위 사건 당시의 부대상황인 e_2 도 5인치가 늘어나기 이전의 길이이므로 명시적으로 $[-+l_5(y)]$ 를 표시해 준다. 즉 양분대립에 의한 상태변화의 문이 열려 새로운 상태사건 e_3 로 변한다. 따라서 전체 사건구조는 중심 행위사건 e_1 과 새로운 결과 상태사건 e_3 가 합쳐진 복합사건구조 e 로 정의한다. 즉 5 인치와 같은 유한척도표현과 공동-합성에 의해 완결성을 보이는 완성술어로 전성된 것을 사건구조로 잘 나타낼 수 있다. 한편 명시적인 유한척도 표현이 없는 (23b)의 경우 원래대로 과정의 단순 행위사건구조를 지닌 행위술어로 보고자 한다. 이에 대한 사건구조는 (24b)로 임의의 길이인 l_n 에서 그 보다 임의의 길이가 늘어난 l_m 으로 늘어난 상태변화는 있지만 완결성이 없어 양분대립을 보이지 못한다. 따라서 그 후의 상태변화도 상태변화의 문이 열려 별도의 새로운 결과상태의 사건구조로 첨가되지 못하고, 그대로 중점행위 사건의 부대상황 e_2 가 조금 변한 e_2 로 정의한다. 즉 Pustejovsky(2000)의 사건구조에서 중점행위 사건 e_1 과 그 적용범위 안에 있는 행위 사건 당시의 부대상황인 e_2 가

함쳐 e_1 으로 정의하였듯이, 과정의 부대상황이 지속되고 있는 단순 행위사건구조로 보아 전체사건을 e_1 이 확대된(projected) e_1 로 정의하고자 한다. 즉 과정의 단순사건구조를 지닌 행위술어이다. 따라서 완결성 교체현상에 의한 논리적 다의 현상을 행위술어 원래의 중점 행위사건구조의 부대상황이 변하고 있는 과정의 단순사건구조와 명시적인 유한척도 표현과 공동합성에 의해 완성술어로 전성된 복합사건의 사건구조로 잘 구별하여 나타낼 수 있다. 이에는 어휘의 상적 의미에 따른 행위술어와 완성술어의 분류를 그대로 유지하면서 당연논항과 공동-합성에 따른 완결성 교체현상을 사건구조로도 잘 설명할 수 있는 이점이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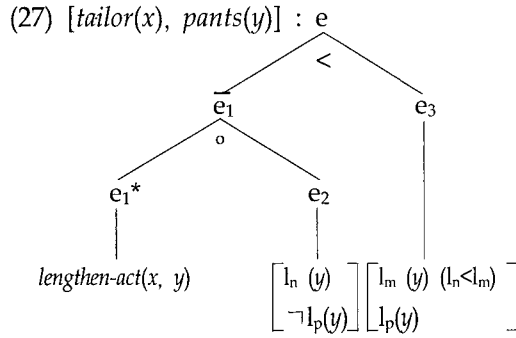
명시적인 유한척도 표현이외에도 다음 (25a)처럼 통사적으로 completely와 같은 부사어와 같이 쓰인 경우나 (25b)처럼 수량 표현이 가능한 보통명사나 한정된 양을 나타내는 표현과 같이 쓰인 경우도 공동합성원리에 따라 완성술어로 전성되는 것으로 보고 양분대립에 따른 복합사건구조로 설명할 수 있다.

- (25) a. They are widening the road 5 meters/completely.
- b. He ate a plum/a plate of spaghetti in ten minutes.

한편 완결성이 맥락에 의해 결정되는 경우를 살펴보자.

- (26) a. The tailor lengthened *my pants*.
- b. Kim is lowering *the blind*.

무한척도 정도달성술어 lengthen과 lowering은 일반적으로 (24b)처럼 완결성이 없는 행위술어로 쓰이지만 (26)처럼 pants나 blind와 같이 쓰일 경우 pants나 blind에 대해 사회적 맥락에 따라 관습적으로 정해진 길이가 있는 것으로 보고 유한척도로 해석되어 완결성을 나타낸다. 이경우도 같이 쓰이는 pants나 blind가 갖고있는 특질구조와 공동합성에 의해 완성술어로 전성되는 것으로 본다. 이에 대한 사건구조는 다음과 같다.



(24a)와 마찬가지로 개체 x 가 *tailor*이고, 개체 y 가 *pants*라는 서술 $[tailor(x), pants(y)]$ 은 중점사건인 길이를 늘이는 행위사건 $e_1: [lengthen-act(x, y)]$ 보다 넓은 적용범위를 가지므로 논항 자체는 변화하지 않고 지속된다. 또 중점행위 사건 당시의 부대상황인 e_2 는 *pants* y 의 길이가 임의의 길이인 l_n 으로 기술하고, 또 그 후의 상태변화 상황은 그 보다 임의의 길이가 늘어난 l_m 으로 기술한다. 이때 *pants*에 대해 관습적으로 정해진 적절한 길이로 늘렸다는 상태변화를 나타내 주고 있으므로, 이를 l_p 로 정의하여 길이가 적절한 길이가 되었다는 $[l_p(y)]$ 를 더 첨가한다. 또 중점행위 사건 당시의 부대상황인 e_2 는 적절한 길이로 늘어나기 이전의 길이이므로 명시적으로 $[\neg l_p(y)]$ 를 표시해 준다. 즉 적절한 길이가 아닌 경우에서 적절한 길이가 되었다는 양분대립이 성립하므로 상태변화의 문이 열려 새로운 결과상태 사건 e_3 로 변하는 것으로 본다. 따라서 전체 사건구조는 중심 행위 사건 e_1 과 새로운 결과 상태 사건 e_3 가 합쳐진 복합사건구조 e 로 정의한다. 즉 *pants*와 같이 사회 관습적으로 정해진 적절한 길이를 나타내는 표현과 통사적으로 같이 쓰여 공동합성에 의해 완결성을 보이는 완성술어로 전성된 것을 복합 사건구조로 잘 나타낼 수 있다.⁷⁾

⁷⁾그러나 적절한 길이에 대한 당연 값은 다음과 같이 취소 가능한 함축이다.

(i) The tailor lengthened my pants, but not completely.

*lengthen*은 무한척도술어이지만 *my pants*와 같이 쓰일 때 사회적 맥락에 따라 *pants*에 대해 관습적으로 정해진 유한척도의 길이가 있는 것으로 보고, 완결성이 있는 것으로 정의하였다. 그러나 (i)처럼 이를 부정해도 모순이 생기지 않는다. 즉 관습적으로 정해진 유한척도의 완결성은 취소가 가능한 대화상의 함축이다. 이와 같은 함축을 의미구조나 사건구조로 나타내기는 무척 어려

6. 결론

지금까지 완결성교체 현상에 대하여 Pustejovsky(1995)의 생성어휘부 이론에 입각하여 공동-합성(co-composition)의 개념과, Pustejovsky(2000)의 양분대립에 따른 사건구조를 응용하여 설명해보았다. 2절에서는 완결성교체 현상을 보다 체계적으로 설명하기 위해 Pustejovsky(1995)의 생성어휘부이론의 기본개념과 어휘의미구조 및 공동-합성과 같은 생성기제에 대해 알아보았다. 3절에서는 Hay/Kennedy/Levin(1999)에서 제기한 완결성 교체현상과 그 문제점을 지적하였다. 이어 이를 생성어휘부 이론으로 보다 체계적으로 설명한 이정민(2002)의 수정확대 어휘의미구조에 대해 알아보고, 그 단점으로 사건구조상으로는 구별하지 못하고 있는 점을 지적하였다. 따라서 논항교체 현상을 당연논항과 단순한 공동-합성과정의 아니라 논리적 다의 현상으로 보아, 행위술어에서 공동-합성에 의해 완성술어로 유형 전성된 것으로 정의하였다. 4절에서는 이와 같은 논리적 다의 현상을 사건구조로 설명하기 위해 Pustejovsky(2000)의 양분대립에 따른 사건구조에 대해 알아보고, 문제점으로 사건구조의 기술이 완성술어에 한정하고 있어 완결성 교체현상을 설명하지 않고 있음을 지적하였다. 따라서 이를 약간 수정하여 행위술어의 단순과정사건구조와 완성술어의 복합사건구조로 구별하여 설명하였다. 즉 명시적인 당연논항과 공동-합성원리에 의해 완성술어로 유형변경이 이루어져 완결성을 이룬 경우는 양분대립이 성립하여 새로운 결과의 사건이 만들어져, 전체적으로 중점인 행위사건과 양분대립에 따른 완결성을 지닌 결과의 상태사건으로 이루어진 복합사건구조를 지닌 것으로 설명할 수 있었다. 반면 명시적인 당연논항이 없어 완결성을 이루지 못한 경우는 중점인 행위사건이 단순히 연속되고 있는 과정의 단순사건구조를 지닌 행위술어로 설명하여 복합사건구조의 완성술어와 구별하여 설명할 수 있었다.

우나, Gazdar(1979)에서처럼 잠정적인 결과 상태 사건으로 보고 대화상의 함축처럼 잠정적으로 문맥에 투사되었다가 부정할 경우 취소되고, 그렇지 않은 경우는 문맥에 그대로 투사되는 것으로 가정할 수 있다. 즉 사건구조에서 상태변화의 문이 반쯤 열려 새로운 결과의 상태사건으로 잠정적으로 투사되었다 (i)처럼 명시적인 부정이 없을 경우 그대로 새로운 사건구조 투사되어 (27)과 같은 복합사건구조를 이루고, (i)처럼 명시적으로 부정할 경우 새로운 결과 사건이 취소되고, 과정의 중심행위사건의 부대상황이 지속되고 있는 (24b)와 같은 과정의 단순행위사건이 되는 것으로 가정할 수 있다.

이와 같이 완결성 교체현상에 따른 논리적 다의 현상을 명시적인 당연논항과 공동-합성원리 및 양분대립에 따른 복합사건구조로 설명하여 행위술어의 단순사건구조와 구별함으로써 전통적인 술어분류인 행위술어와 완성술어의 구별을 그대로 유지하면서도 완결성 교체현상을 잘 설명할 수 있는 이점이 있다. 즉 명시적으로 5미터 등과 같은 유한 척도 표현이나 completely와 같은 수식어와 통사적으로 같이 쓰여 명시적인 당연논항이 있는 경우는 공동-합성에 의해 완성술어로 유형 전성되어 사건구조도 양분대립에 따른 복합사건구조를 이루는 경우로 잘 설명할 수 있었다. 그러나 Hay/Kennedy/Levin(1999)이 문맥 의존적인 완결성 교체 현상은 함의가 아니라 취소가 가능한 함축으로 정의하고 있으므로, 이를 포함하여 설명하기 위해서는 보다 정밀한 어휘의 미구조나 사건구조로 형식화해야 하는 과제가 남아 있다.

참고문헌

- 이정민. 2002. 척도 표현, 상 및 완결성의 어휘적 표상. 한국영어학회 2002 겨울 학술발표회 자료집, 15-37.
- 이정민, 김영화, 강범모, 남승호, 이하규, 공저. 2000. 『의미구조의 표상과 실현』. 한림과학원 총서 74. 서울: 소화출판사.
- Dowty, D. R. 1979. *Word Meaning and Montague Grammar*, Dordrecht: Reidel.
- Dowty, D. R. 1991. Thematic proto-roles and argument selection. *Language* 67, 547-619.
- Gazdar, G. 1979. *Pragmatics*. New York: Academic Press.
- Hay, J., C. Kennedy, and B. Levin. 1999. Scalar structure underlies telicity in degree achievements. *SALT* 9.
- Kennedy, C. 1997. *Projecting the Adjective: The Syntax and Semantics of Gradability and Comparison*. Doctoral dissertation, UCSC.
- Levin, B. 1993. *English Verb Classes and Alternations*. The University of Chicago Press.
- Pinker, S. 1989. *Learnability and Cognition: The Acquisition of Argument Structure*. Cambridge, Mass.: MIT Press.
- Pustejovsky, J. 1995. *The Generative Lexicon*. Cambridge: The MIT Press.
- Pustejovsky, J. 2000. Events and the semantics of opposition. *Events as Grammatical Objects*, 445-82. CSLI Publications.
- Van Valin, R. and R. LaPolla. 1997. *Syntax: Structure, Meaning and Function*. Cambridge: Cambridge University Press.
- Vendler, Z. 1967. *Linguistics in Philosophy*. Ithaca: Cornell University Press.

김경학
경기도 화성시 봉담읍 와우리 산 2-2번지
수원대학교 인문대학 영어영문학과
우편번호: 445-743
전화번호: 031) 220-2372
E-mail: khkim@mail.suwon.ac.kr

접수일자: 2002. 4. 25.
게재결정: 2002. 5. 30.